



## 농림부 인사발령

농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 부장



▲ 민연태 축산정책과장



▲ 조정래 축산경영과  
양계담당 사무관

## 한국낙농육우협회 협회장에 이승호 후보 재선



한국낙농육우협회 제 13대 회장에 이승호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14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호 후보가 92표를 얻어 50표를 얻은 박응규 후보를 42표차이로 제치고 이승호 후보가 협회장에 재선되었다.

## 대한양돈협회장 협회장에 김동환 후보 당선



◀ 김동환 회장

대한양돈협회 제16대 회장에 김동환 후보가 당선됐다.

김동환 양돈협회장 당선자는 지난 9일 대전

샤또그레이크호텔에서 개최된 제28차 정기 대의  
원대회에서 총 16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85표를 획득해 78표를 얻은 최영열 후보를 앞  
질렀다.

김동환 당선자는 “양돈 지도자들의 현명한 선  
택에 감사드린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  
도자,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제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향후 3년간 가축분뇨 자원화 해  
결과 소모성 질병을 뿌리 뽑는데 주력할 계획이  
다”며 “전 양돈인의 화합을 바탕으로 힘 있는 협  
회,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 낙농진흥회 강명구 신임회장 선임



◀ 강명구 회장

낙농진흥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양정화 회장 후임에 강명구(59)  
전 농업연수원 전문교육과장을 신임 낙농진흥회  
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강명구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18회 행정고시에 합격, 농림부  
기술협력과장, 투자심사담당관, 농업기자재과장,  
통계기획담당관, 산림청 등 주요 부서에서 다양  
한 업무를 섭렵한 바 있다.

특히 신임 강 회장은 아프리카개발은행(1989),  
국제심판소 조사관(199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2002) 파견근무를 통해 다양한 해외업무를 두  
루 거쳐 국제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동물번식학회 신임 회장에 정진관 박사 선출



◀ 정진관 회장

한국동물번식학회는 2006년 10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축산연구소 정진관 박사  
를 선출하였다.

부회장으로 한생연 정구민 소장이 선출되어  
건국대 이훈택 교수와 한경대 윤종택 교수 등 3  
명이 부회장으로 2007년도 회장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한국토종닭협회 협회장에 김연수 소래영농조합법인 대표 선출



◀ 김연수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 소래

축산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수 후보가 한국토종닭협회장으로 당선됐다.

한국토종닭협회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무등록 종계 척결과 토종닭 정의, 협회 조직 체계 확립, 사단법인 추진기획 및 준비, 토종닭 인증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회를 이끌어갈 새회장으로 김연수씨를 선출했다.

## 농업전망 2007

###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산지가격 약세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1월 24일 잠실롯데호텔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 농업계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07』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망대회는 “한국 농업·농촌, 밝은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열려 농업협상, 농가경제, 신기술·시장 개발, 농촌 개발·복지, 외국의 농업·농정 등의 주요 이슈와 품목별 수급전망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닭고기 분야는 공급과잉으로 2007년 육계 산지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종계 입식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닭고기 공급 과잉이 예상되며 육계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2007년 육계 산업은 생산성이 낮은 종계의 적극적인 도태를 통하여 닭고기 수

급의 안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산란계 분야는 지난해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2005년보다 3.3% 증가한 5,534만마리를 기록했다. 산란종계 병아리 입식마리수 감소폭보다 노계도태 지연 등으로 늘어난 생산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계란평균산지가격도 2006년 보다 0.7% 하락한 801원으로 전망됐다.

계란 소비는 최근 3년 매 해마다 약 2%의 증가세를 보여 2006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1.0kg로 추정됐다. 그러나 소비가 늘어난 이유가 대형유통할인점의 원가이하 할인행사에 기인했다는 점은 해결과제로 남았다.

한편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비 상승할 것으로 보였다. 옥수수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 증가로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년 축산물 생산비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한국양계농협

### 생산·마케팅부분 조직개편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경제사업부 조직을 개편하고 본소에서 경기도 광주소재 수도권통합유통센터로 이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국양계조합은 그 동안 통합 운영되던 경제사업부문을 생산부문과 마케팅부문으로 세분화시켜 경영지원팀과 영업지원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지원팀은 공격적이고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게 되며 계란 및 난가공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영지원팀은 수도권통합유통센터를 비롯해 목포, 대구, 영주 등 유통센터와 평택의 난가공공장의 지원업무와 OEM사료 판매 등 조합원 및 조합 사업장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시관련 가금산물 안전성 홍보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대한양계협회,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1월 25일 서울시 영등포 소재 삼성홈플러스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계란은 물론 가금산물 우수성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양계농협에서 준비한 산소란 및 계란우수성 홍보 전단 등을 소비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계란후라이 시식행사도 함께 가졌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양계산물 소비증진에 큰 도움을 주었다.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현장 간담회 성공열쇠는 온도관리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제도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소비자 시장인 유통매장에서도 같은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경기 화성 소재 한강CM에서 실시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제도의 핵심은 도계장에서의 심부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유통매장에서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판매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밀봉포장이 되면 온도 1℃ 차이에도 미생물 번식이 급격히 증가, 자칫 소비자 시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반송·반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훈 한국계육협회 전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닭고기는 작업장 온도도 소, 돼지보다 낮도록 규정돼있다”며 “이 같은 특성을 감안토록 고시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포장유통과 관련 민상기 건국대학교 교수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제도의 성공을 위해 유통매장 온도는 4℃가 적절한 것이 밝혀졌다”며 현행처럼 1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설날 대비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07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10일간) 축산물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처리하는 업소, 축산물을 판매하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재래시장의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강제급수 및 농가 등에서의 소, 양 등 불법도살 행위,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부패·변질 축산물의 보관·진열·판매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하였다.

검역원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판매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정·불량축산물은 1588-9060번 또는 인터넷 『www.nvr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가금학회 제 2차 임원회의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김기석) 2007년도 제 2차 임원회의가 지난 9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춘계심포지엄 준비와 해외학술활동지원펀드 활용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춘계심포지엄은 4월말~5월초에 열릴 것으로 잠정 계획되었고, 주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질병과 위생관리부분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되 생산자 등 가금산업과 관련인들의 참여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학술회의와 행사 등 참여를 목적으로 폭넓은 연구활동을 위해 운영중인 해외학술활동지원펀드는 한국가금학회 회원 중 가금학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가시 참가경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국제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국내가금분야의 발전으로 이끌고자 개인별 연간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기로 하였다.

##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육용원종계 수급대책 논의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육용원종계 수급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본회의회의실에서 4개 원종계사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계 수급동향 및 종계생산성 동향에 대한 논의와 업체별 원종계 수입 및 종계 자체활용(판매)계획 등 앞으로의 원종계 쿼터제 운영 및 향후 수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육용원종계 수입현황을 보면 2005년 하반기 육용원종계 쿼터제(94,000수) 파기 이후 원종계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총 수입물량은 141,600수로 전년동기(109,200수)대비 29.7%가 증가되었고, 2007년도 육용원종계 수입 예정물량도 195,000수에 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수급위에서는 과도한 수입이 지속될 경우 향후 종계(PS) 및 육계 수급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원종계 4사의 경우 각자 자체사용과 판매처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시장경제 논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종계에서도 일정물량 이상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4사는 수급안정차원에서는 공감은 하나 현지시장 상황에서의 물량을 줄인다는 데는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한국자조금연구원 2007 자조금발전대책 세미나



축산자조금의 정부 보조금은 거출금액의 100%로 하되 거출금액에 관계없이 한도금액이 50억원으로 정해졌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은 14일 aT센터에서 '07년도 자조금 발전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조금의 50억원 한도, 미시행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월 등 축산자조금법의 시행규칙에 대해 발표했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강민철 사무관은 축산자조금 문제점으로 자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수납기관 관련문제,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거출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고 보조 사업비

확보 문제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자조금의 경우 현행과 같이 거출금(사업비)의 100%이내 지원, 의무자조금의 경우 거출금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 검토해, '07년 사업의 경우 거출금액에 관계없이 50억원으로 한도를 정한다고 밝혔다.

축종별 자조금 사업계획 수립시 축종별 자조금의 형평성 유지 및 정부지원방향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통항목에 대해 지출단가를 조정하고, 조성된 거출금(보조금 제외)을 이월, 적립 등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납기관(도축장 등)의 거출금 징수 수수료를 높여 수납기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자조금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를 거출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상향해 수납기관의 성실한 자조금 징수와 새로운 수납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축두수 등의 자료가 매월 5일 경에 자조금 사무국에 통보되는 점을 감안, 매달 10일까지 거출금 납입고지서의 발급 및 거출금 납입이 어려워 매달 20일까지로 연장해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07년도 사업 및 혁신전략회의'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2월1일 3층 회의실에서 중앙본부 임·직원과 도 본부장·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사업 및 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금년 방역사업은 소부루세라병,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



키병, 닭뉴캐슬병 등 주요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계획적인 시료채취, 검사 및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농장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악성전염병의 청정화 유지 상태 확인과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농가 방역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업무를 연계하여 질병 역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자율방역의식 제고와 농가방역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방역선도농가 육성 등 농가순회교육을 강화하고, 농가만족도 제고를 위해 예찰·시료채취 실태 전화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한다. 예산·인력 및 행정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내부직원에 대한 경영혁신 마인드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기능 활성화 및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에 의한 조직활력 제고로 혁신동력을 강화하고, 도본부별 혁신평가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한우협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8일 한미 양국의 검역 관계자들의 뺏조각 허용에 대한 기술협의를 저지하기 위해 검역원 앞에서 평화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을 비롯한 한우농가 회원 등 총 27명이 연행되었다.

이와 관련 위생적이지 못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고, 연행된 27명의 한우농가를 즉각 석방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농민연합&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업용 유류 영구면세 개정안 발의

농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는 지난 8일 국회 본청 브리핑룸에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영구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취지와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단협에 따르면 현재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올해 6월에 일몰이 도래돼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 경우 농산물 생산비가 올라감에 따라 농가 소득이 하락해 농업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